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추진...총리는 국회 추천”

개헌 공약...“정권 중간평가” 검·감사원 개혁, 거부권 제한 “내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립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경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

하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총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

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시 4년 연임이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역사가, 국민이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개헌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김문수 ‘윤 탈당’에 이재명 추격전 총력

홍준표·한동훈에 러브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추격전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18일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윤석열 리스크’는 우선 털어냈다고 본다”며 “이재명 후보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면을 돌파할 기회”라고 말했다.

최근 김 후보 지지율은 중도층은 물론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분열과 중도층 이탈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윤 전 대통령

의 당적 문제가 전날 해소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의 관심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김 후보의 장점과 진면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내부 분석이 있었다”며 “남은 2주 동안은 더 자유롭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반이재명’ 기조 아래 내부 단합을 도모하면서 추격전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우선 자신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워 이 후보와 적극적으로 차별화하는 한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

희대 특검법’이나 ‘대법원 증원 법안’ 등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폭거’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겠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선대위 합류를 고사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러브콜’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탈당 후 미국 하와이에 머무르며 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홍 전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유상범·김대식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이날 파견한다.

아울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불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는 게 김 후보와 당의 구상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전력 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각계 내빈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입장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광주전남지사 등과 함께 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일주일 돈 대선 레이스...이재명 ‘안정적 대세론’

‘협지’ 영남서도 지지율 상승 김문수 정체...이준석 역부족 막판 ‘막말 논란’ 등은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3 대선’ 레이스가 18일로 일주일이나 지났다.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굳혀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격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의 대안을 자처하고 있다.

‘압도적 1위’로 역대 최다 득표율에 도전하는 이 후보는 최대한 변수를 줄이고, 돌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안정적 선거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12·3비상계엄과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 실망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울산(PK) 민심이 흔들리면서 영남권 공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7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후보의 TK와 PK 득표율은 34%와

41%로 선전했다. 이 조사에서 이 후보는 지지율 5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대 지지율을 돌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불협사운드 단일화 과정을 보여준 김 후보는 이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추격자다. 선거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강성 우파 인사들의 합류 등 약재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정체된 상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율은 29%로, 영남권(TK 48%·PK 39%)에서도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58%로, 진보층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84%)에 견줘 핵심 지지층의 결집도가 약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번 대선의 최대 리스크를 털어내고 추격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의 각종 내홍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감과 이 후보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자신이 대안이 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8%를 기록하는 등 아직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거대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경향적도 극복해야 하는 요소다.

중반전으로 접어들어 대선 판도의 변수로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이 미칠 여파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흩어진 지지층을 결집하고 등을 돌린 중도층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나 당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미지를 얻기에는 탈당이 너무 늦었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남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 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막말 논란’도 막판 표심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3-15일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서울=김현수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Bowling,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골프는 광주 최고 수준의 PARP 서비스 스크린을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골프는 광주 최고 수준의 PARP 서비스 스크린을 12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4대방 공간

BIF_BOWLING
코스튬쇼와 공연이 함께하는 24시간 규모의 대형 bowling

2-3F Screen Golf

1F Fun it, us Cafe & Lounge

B1 Bowling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2리192(차량동) 구, 상무리1번길1번상무빌딩

국힘 탈당 김상욱, 5월 광주서 민주 입당

“더 건강한 민주당돼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8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의 입당 선언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10일만, 지난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날 광주에서 유세 중인 이 후보를 만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날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탈당 후 어느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해 오다 민주당과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에 입당해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 하고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함께 국민을 받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당 배경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다. 야당이 되더라도 야당으로서 해야 할 경제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되면 거대 집권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더 건강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권력 폭주가 있으면 이리하면 안 된다고 직언하고, 바른 일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민주당에서 하고 싶다”며 “민주당 안에서 보수·진보의 기능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하고, 경제·균형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